

『黃帝八十一難經』의 時代別 注釋家 및 그 注釋書에 대한 研究(Ⅰ)

I. 緒論	315
II. 研究內容	316
1. 北宋以前	316
1-1. 北宋以前 『難經』 注釋의 動向	316
1-2. 北宋以前 『難經』 注釋本	316
2. 北宋時代	319
2-1. 北宋時代의 『難經』 注釋의 動向	319
2-2. 北宋時代 『難經』 注釋本	322
3. 金元時代	329
3-1. 金元時代 『難經』 注釋의 動向	329
3-2. 金元時代 『難經』 注釋本	330
III. 結論	335

『黃帝八十一難經』의 時代別 注釋家 및 그 注釋書에 대한 研究(1)

大田大學校大學院 韓醫學科
趙學俊 尹暢烈

1. 緒論

『難經』이 行世한 이후에 後漢 張仲景이 『傷寒雜病論』을 지은 시기에 일찍이 古人이 注釋書를 지어 “八十一難經”이라고 稱하였다. 『傷寒論』의 〈平脈法〉 〈傷寒例〉에서 인용한 『難經』의 文字를 고찰해 보면 現在通行本の 『難經』과는 약간 차이점이 있다. 이는 당시의 『難經』은 古傳本이 이미 한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¹⁾

또한 章을 나누는 면에 있어서 현재 있는 판본에 의하면 두가지 분류 방법이 있다. 한 종류는 楊玄操가 十三章으로 분류하였으나 이는 지나치게 번잡하고, 또 한 종류는 吳澄이 楊玄操

의 분류 방법이 적합하지 않다고 다시 篇次하여 脈學 經絡 藏府 疾病 腧穴 針法 등 六章으로 나누는 것이 있다. 현재에는 後者를 대개 채용하여 研究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難經』의 판본에 대해서 『難經』의 錯簡을 주장한 이도 있고, 혹은 『難經』의 古本이 별도로 있다고 주장한 이도 있으며, 혹은 『難經』이 『內經』을 계승하였다는 正統性을 부정하는 이도 있고, 혹은 『難經』을 醫經으로 보지 않는 이도 있다. 따라서 『難經』을 연구하는 後學으로서의 要點을 얻기가 어려운 實情이므로 『難經』의 注釋書와 그 注釋家를 전반적으로 考察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難經』의 注釋書, 版本, 特徵과 그 注釋家의 生涯, 著書를 時代別로 고증해 봄으로써 『難經』의 研究에 一助를 하고자 한다.

우선 그 첫번째 연구로서 『難經』이 처음으로 출현한 北宋以前 時代부터 宋金元 時代까지

1) 凌耀星, 難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 160

살펴보기로 한다.

II. 研究內容

1. 北宋以前

1-1. 北宋以前 『難經』 注釋의 動向

현재 알려진 최고의 注釋本은 三國의 吳太醫令 呂廣의 『黃帝衆難經』이다. 唐代 楊玄操는 呂廣의 注釋本을 근거로 하여 『難經』을 편찬 정리하여 呂氏注釋文(모두 二十四難)을 남겼는데 原文은 여전히 八十一首이며 呂氏의 미비한 것과 解釋의 미비한 것을 補注하였다. 이상의 呂楊注釋本은 이미 亡佚되었으나 그 내용은 현존하는 『難經集注』의 가운데에 수록되어 있다. 楊氏는 이 귀한 서적을 보존하였으나 原文의 前後次序가 그의 '類例相從 條貫編次'의 수정을 거쳐 마침내 『難經』의 본모습이 이 때문에 모두 잃게 되었다.²⁾

1-2. 北宋以前 『難經』 注釋本

1) 黃帝八十一難 二卷, 黃帝八十一難經 一卷 扁鵲著 存

(1) 秦越人에 대하여

扁鵲이라 불리며 戰國時代에 勃海郡鄭縣(지금의 河北任丘縣)人이다. 少年時에 사람을 접대하는 旅館에서 일하는 중에, 旅館 손님중 長桑

君이 醫術에 정통하였는데 越人이 그를 매우 후하게 대접하였다. 서로 만난지 10년만에 長桑君이 그의 至誠에 감동하여 秘藏한 醫方을 내어주고 모두 傳授하였다. 越人이 師傳을 받은 후에 內科 外科 婦人科 小兒科 針灸 各科에 精通하여 切脈 望色 聽聲 問診에 精通하였으며 더욱이 病의 根源을 推究하여 臨證時마다 효과가 있었다. 그 후에 醫術을 품고 天下에 周流하면서 고치기 어려운 大病을 매우 많이 치유하여 세상사람들이 神醫로 指目하였다. 越人은 일찍이 虢國을 지나다가 太子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마침내 몸소 宮門에 도착하여 그 死因과 死亡을 물어 보고 "太子가 아직 죽지 않았다"고 斷言하였는데 그 病은 尸厥證이었다. 門生인 子陽과 子豹 등에게 命하여 法에 따라 치료하고 잠시 후에 太子가 깨어나서 계속하여 湯劑를 服用하게 하였더니 나왔다. 天下에 이 일이 크게 전해지면서 모두 越人에게는 "起死回生"의 醫術이 있다고 일컬어졌다. 越人이 "此自當生者 越人能使之起耳"라고 말하였다. 기타의 史籍이 古書에 나타난 것이 매우 많으며 대개 기이한 색채를 띠고 있다. 예를 들어 趙簡子의 疾病을 치료하고 齊桓侯의 病患을 보고 魯公扈 趙齊嬰를 위하여 "換心術"을 시행한 것 등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 諸說은 비록 믿을 만한 歷史는 아니나 이로 인하여 또한 越人의 名聲을 알 수 있다. 秦나라 太醫令 李醯가 醫術이 越人보다 낮음을 알고 사람을 시켜 살해하였으니 一代의 名醫가 마침내 질투하는 小人의 손에서 죽은 것이다. 戰國時代에는 巫術이 盛行하였는데 越人은 가장 먼저 六不治의 說을 提倡하여 "信巫不信醫"하는 風潮를 革破하였다. 또한 養生 豫防에 힘썼으니 그의 思想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참고할 가치가 있다.

2) 凌耀星, 上揭書, p.161

漢代 史學家인 司馬遷이 칭찬하기를 “至今天下言脈者 由扁鵲也”라 하여 그를 後世醫家의 始祖로 보았다.³⁾

(2) 秦越人の 著書

『漢書 藝文志』에 의하면 『扁鵲內經』 九卷 『扁鵲外經』 十二卷을 지었는데 모두 佚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지금 세상에 유행하는 『難經』 一書는 “秦越人撰”이라고 되어 있지만, 考證에 의하면 後人の 假託에서 나온 것이다. “扁鵲著”라고 되어 있는 『子午經』 『指歸圖』 『玉龍歌』 등의 책은 더욱 확실히 僞託한 著書이다.⁴⁾

(3) 著書特徵

秦越人이 지었으며 현존하고 있다.⁵⁾

『隋書·經籍志』에는 『黃帝八十一難經』 二卷이 있다고만 되어 있고 著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唐書·經籍志』에 비로소 『黃帝八十一難經』 一卷 秦越人撰이라 하였고 『新唐書·藝文志』에는 『黃帝八十一難經』 二卷이라고 되어 있다.⁶⁾

(4) 現在保有版本

『古今圖書集成·藝術典醫部匯考』에 실려 있다.⁷⁾

2) 黃帝衆難經 一卷 (吳) 呂廣注 佚

(1) 呂博에 대하여

一本에는 呂廣이라고 되어 있다. 三國時代 吳나라 사람이다. 『玉匱鍼經·序』에 의하면 어려서 醫術로 이름이 났으며 診脈과 論疾에 능했다. 赤烏二年(239년)에 太醫令이 되었다.⁸⁾

呂博의 이름에 대해서 ① 『補三國藝文志』에 의하면 呂廣이 本名이고 呂博은 그 字라 하였으니, 『隋書·經籍志』에 梁代에 『黃帝衆難經』 一卷을 呂博望이 注하였으나 佚失하였다고 하였는데…… 呂博은 『七錄』에 呂博望이라 칭하였으니 或시 그 사람의 字가 아닌가”라고 하였다.

② 『醫學源流』에 의하면 呂廣과 呂博을 同一人으로만 보고 구체적인 설명은 없으니, “呂廣은 吳나라 사람이고 太醫令이었으니 『難經』을 거둬 편찬하였다. …… 『名醫圖』를 살펴보면 呂博은 있어도 呂廣은 없으니 나는 呂博이 卽 呂廣인 것 같다.”고 하였다.⁹⁾

③ 丹波元簡의 『醫籍考』에 의하면 呂廣이 本名이고 呂博은 隋煬帝의 이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僧幻雲의 『史記·扁倉傳附標』에 ‘黃帝八十一難經은 吳나라의 太醫令 呂廣이 注하였는데 一本에는 呂博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살펴보면 呂氏의 本名은 廣인데 隋代에 國諱를 피하기 위하여 마침내 博이라고 바꾸었으니 先子가 呂博望은 卽 呂廣이라 한 것이다. 魏나라 張楫의 『廣雅』를 隋나라 曹憲이 音解할 때에 煬帝의 諱를 피하여 『博雅』라고 改名하였으니 이를 근거로 하여 呂氏의 이름이 博으로 된 것은 隋나라 사람이 바꾸어 놓은 것과 관련이 있으니 어찌 甘氏가

3) 李雲, 中醫人名辭典, 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1988, p. 691

4) 李雲, 上揭書, p. 691

5) 嚴世藝, 中國醫籍通考,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1, p. 164

6) 凌耀星, 上揭書, p. 181

7) 嚴世藝, 上揭書, p. 164

8) 李雲, 上揭書, p. 148-149

9) 嚴世藝, 上揭書, pp. 164-165

『名醫圖』에서 우연히 고치지 않은 것이라!¹⁰⁾라 하였다.

(2) 著書

『宋史·藝文志』 『崇文總錄·醫書類』 『太平御覽·方術部』 『國史經籍志』 『稽瑞樓書目』 등에 의하면 著書가 매우 많은데 지금 알려진 것은 『金藤玉匱針經』 十卷 『難經注』 五卷 『金韜玉鑿經』 三卷 등이 있으나 모두 佚失되었다.¹¹⁾

(3) 著書特徵

『隋書·經籍志』에는 『黃帝衆難經』 吳의 呂廣(一本에는 呂博, 呂博望이라고 되어 있다)이 지었다고 되어 있고, 『七略』에는 一卷이라고 되어 있고, 『通志·藝文略』에는 二卷이라고 되어 있고, 『冊府元龜』 卷七二四에는 『八十一難經注』라고 되어 있으나 이미 佚失하였다.¹²⁾

3) 黃帝八十一難經注 一卷 (吳) 呂廣注 (唐) 楊玄操撰 佚

(1) 楊玄操에 대하여

一本에는 揚玄이라고 되어 있다. 隋唐間의 사람으로 고향은 자세하지 않다. 官職은 欽州縣尉이다. 訓詁에 精通하고 兼하여 醫理에 통하였다. 일찍이 太醫令 呂廣이 지은 『難經注』 一書를 거듭 注하였으니, 呂注의 未盡한 것을 보충하여 상세한 注釋을 하고 아울러 音義를 붙여 그 뜻을 명확히 하여, 십년에 걸쳐서 『黃帝八十一難經注』 五卷을 지었다.¹³⁾

10)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64

11) 李雲, 上揭書, p. 148-149

12) 凌耀星, 上揭書, p. 181

丹波元胤의 『醫籍考』에 의하면 唐代 初期의 사람이라 하였으니, 楊玄操는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상고해 보면 開元中에 張守節이 『史記正義』를 지을 때 倉公傳에 楊氏의 序文과 學說을 採錄하였으니 唐初의 사람인 줄 알겠다. 그 演繹과 注釋은 온전히 王翰林 集註中에 있으니 이른바 또한 이름은 없어졌으나 실체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⁴⁾

(2) 著書

『舊唐書·經籍志』, 『新唐書·藝文志』, 『宋史·藝文志』, 『郡齋讀書後志』, 『畿輔通志』, 『中醫大辭典』 등에 의하면, 著書에는 또한 『素問釋音』 『鍼經釋音』, 『本草注音』, 『黃帝明堂經注』(一名 『明堂音義』) 등이 있다고 전해진다.¹⁵⁾

(3) 序文

楊玄操의 自序가 있다.

(4) 著書特徵

『郡齋讀書後志』에 吳에 呂廣이 注하고 唐에 楊玄操가 演하였다라고 하였고, 『文獻通考』에서 『呂楊注八十一難經』 五卷이라고 하였고, 『日本國見在書目錄』에는 『難經本義』의 〈引用諸家姓名〉에서 『難經注釋』 九卷이라고 하였으나 佚失하였다.¹⁶⁾

4) 八十一難音義 一卷 (唐) 楊玄操撰 佚

13) 李雲, 上揭書, p. 328

14) 嚴世藝, 上揭書, p. 164

15) 李雲, 上揭書, p. 328

16) 凌耀星, 上揭書, p. 181

(1) 著書特徵

『日本國見在書目錄』에서 唐에 楊玄操가 『八十一難音義』를 지었다고 되었으나 佚失하였다.¹⁷⁾

『中國醫籍通考』에서는 岡西爲人이 『宋以前醫籍考』에 楊玄操가 撰하였다고 하였다고 고찰하였다.¹⁸⁾

2. 北宋時代

2-1. 北宋時代의 『難經』注釋의 動向

(1) 北宋時代의 校正本과 音釋

현재 알려진 최초로 『難經』을 校正한 사람은 北宋時代의 王九思이다. 이후 王鼎象이 再校正하고 王維一이 거듭 校正(이를 모두 『醫籍考』에는 『難經俗解抄』라고 바꾸어 인용하였다)하였다. 北宋天聖四年(1026年)에 集賢校理 晁宗慤 王舉正 등이 醫官을 조직하여 『素問』 등의 三部醫書를 校正하였는데 『難經』은 그 중의 하나이다. 이상 三種의 校正本은 모두 이미 현존하지 않으나 그 姓名이 모두 『難經集注』卷首의 撰人項中에 나타나 있으며 校正한 내용은 그 책중에 있으나 모두 校記가 없다.

이외에 『難經集注』의 撰人項中에 『石友諒音義』가 있다. 石氏의 생애는 자세하지 않는데 馬繼興이 『經典醫籍版本考·難經』에서 別號인 東京道人을 분석하여 “『音釋』은 본래 마땅히 北宋의 產物이다”라고 하였으니, 대개 “東京은 北宋都城인 汴京(현재의 開封市)을 가리키며 南宋 이후 臨安으로 遷都하여 이미 東京의 稱號

가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¹⁹⁾

(2) 北宋時代의 注釋本

宋代의 注釋家는 十餘人 이상이나 그 注釋本은 이미 亡佚되었다. 주로 丁德用의 『補注難經』 五卷(1062년), 虞庶의 『注難經』 五卷(1067년)이 있다. 이상의 두 책은 『郡齋讀書後志』와 『文獻通考』 등에 書目이 있다. 楊康侯의 『注難經』은 卷數는 자세하지 않으나 그 書名이 『醫籍考』에 나타나 있다. 丁氏 虞氏의 注釋本은 醫理에 대해 闡發한 것이 많고 呂氏 楊氏의 注釋에 대해 評論하였다. 注釋文 중에 그들이 근거하여 注釋한 『難經』의 古本의 내용은 지금의 通行本과 달라서 校勘에 참고할 가치가 있다. 楊康侯의 注釋文은 楊玄操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虞氏의 注釋에 9곳에서 楊氏의 이름을 밝혀서 楊玄操의 注釋文이라고 인정되는 곳 이외에 나머지는 모두 구별하기 어렵다.²⁰⁾

(3) 『王翰林黃帝八十一難經集注』에 대하여

『王翰林黃帝八十一難經集注』는 『難經集注』라고도 간략히 칭한다. 이 책은 北宋 이전의 五人의 注釋과 三人의 校正와 一人의 音釋을 보존하고 있으니 현존하는 最古의 注釋本이다.

『難經十家補注』는 『難經集注』의 前身이나 그 책은 이미 일찍이 亡佚되었고 書名만이 가장 먼저 日本野間君(成式) 野間仁夫(成己) 父子가 주장한 無名氏의 『難經俗解抄』의 卷首에 나타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丹波元簡의

17) 凌輝星, 上揭書, p. 181

18) 嚴世藝, 上揭書, p. 167

19) 凌輝星, 上揭書, p. 161

20) 凌輝星, 上揭書, pp. 161-162

『醫籍考』에서 인용한 “所謂十家是并越人而言之니 曰盧秦越人이 撰하고 吳太醫令呂廣이 注하고 濟陽丁德用이 補注하고 前欽顯尉楊玄操 | 演하고 巨宋陵陽草萊虞庶 | 再演하고 青陽楊康侯 | 續演하고 琴臺王九思 | 校正하고 通仙王正象 | 再校正하고 東京道人石友諒이 音釋하고 翰林醫官朝散大夫殿中省尚藥奉御騎都尉賜紫金魚袋 王維一이 校正하니 建安李元立이 錄²¹⁾木於家塾 하노라”과 같다. 이로 보아 『難經十家補注』의 十家란 秦越人을 포함하여 呂廣, 丁德用, 楊玄操, 虞庶, 楊康侯, 王九思, 王鼎象, 石友諒, 王維一 등의 十人을 말한다. 이상의 十人의 姓名은 또한 『難經集注』의 매권 卷首의 撰人項 중에도 나타난다. 그러나 배열한 次序가 약간 차이가 있으며 또한 官職과 本貫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馬繼興은 『經典醫籍版本考·難經』에서 『難經集注』는 『難經十家補注』을 重刻改訂本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難經集注』의 최후의 編輯者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學說이 있는데 北宋의 王翰林 王維一이라고 하기도 있고 明代의 王九思라고 하기도 한다. 王維一과 王九思는 시대적 차이가 前後로 460餘年이나 달한다. 만약 明代의 著述이라면 『難經本義』의 뒤에 지어진 것이 된다. 그 成書年代를 확정하기 위해 『中國醫籍考』와 기타 유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考證하면 다음과 같다.²²⁾

(1) 王翰林에 대하여

『九靈山房集·滄州翁傳』에 의하면 明初에 呂復은 일찍이 “宋王維一集五家之說”이라고 제

시하였다. 王維一은 이미 『難經十家補注』를 최후로 重校正한 사람이며 또한 翰林醫官의 벼슬을 하였으므로 王翰林은 곧 王維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상 王維一은 宋仁宗天聖五年(서기 1027년)에 鍼灸俞穴銅人을 奉勅하여 鑄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難經集注』 중의 丁德用(1063년) 虞庶(1067년) 楊康侯(1094년) 등 세명의 注釋家의 年代는 모두 그 후에 있으므로 따라서 丹波元胤은 『醫籍考·醫經七』에서 “惟一歷仕仁宗 英宗兩朝(1023-1067년) 修銅人經之後 經數十年而校正是書也”라고 하였다. 이 주장은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러하더라도 그 重校正한 시기가 楊康侯보다 약간 前이므로 王維一은 『難經校注』을 최후로 編輯한 사람일 수는 없다.

『玉海』 卷六十三과 『諸病源候論』 宋代人인 宋綬의 序에 의하면 北宋初期에 宋朝에서 天聖四年(1026년)에 集賢校理 晁宗愷 王舉正 등에 醫官을 조직하도록 命하여 三部醫書, 즉 『素問』 『難經』 『諸病源候論』을 校正하여 그 다음해에 간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때 『難經』을 校正하는데 참가한 사람은 王維一인지, 王維一 이전에 王鼎象은 또한 언제 『難經』을 再校正하였는지, 王鼎象은 天聖四年에 『難經』을 校正한 것이 가능하였는지, 그가 翰林醫官을 지냈는지에 관한 문제는 지금까지도 考證하기가 어렵다. 또한 『難經校注考察』에서 何愛華의 考證에 근거하면 王哲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宋代 眞宗天禧年間(1017-1021년)에 官兵部郎中과 集賢校理 太常博士 翰林學士를 두루 지냈다. 그는 天聖四年에 『難經』을 再校正하는 使命을 이어받았을 수 있다. 그러나 王哲象과 王鼎象은 동일인인지는 考證이 불가능

21) 錄(침): 새기다, 판각하다, 송곳, 날카롭다

22) 凌羅星, 上揭書, p.162

하다. 우선 이 一說을 제기해 보도록 한다.²³⁾

(2) 王九思에 관하여

守山閣本 『難經集注』 撰人에 '明 王九思等 輯'이라고 되어 있고, 책머리에는 '明 王九思 石友諒 王鼎象 王維一輯'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는 王九思가 先頭이며 王維一이 가장 뒤에 있고, 또한 모두 明代 사람이 배열되어 있다. 가장 먼저 이 說을 제기한 사람은 日本 사람인 林衡인데 그는 佚存叢書本 『難經集注』 跋文중에 "蓋當時各家別行 至九思始掇輯 以便觀覽耳"라고 하였다. 이후에 『四部叢刊書錄』, 『四庫未收書目提要』와 같은 清代의 書錄과 近代의 몇몇 書目에서 모두 이 說에 附和雷同하였다. 그러나 丹波元胤은 이 說이 잘못되었다고 인식하여 "祭酒林天瀑先生衡의 佚存叢書에 嘗刻是書호되 曰明王九思所編은 蓋未深加考究也라"라고 지적하였다. 王九思는 明代 사람이 아니며 『難經集注』도 王九思가 編輯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할 만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볼 수 있다.

① 세 사람의 校正人 中에서, 王九思가 가장 먼저이며 王鼎象은 再校正하였으며 최후에는 王維一이 또 한번 重校正하였다. 王維一은 이미 北宋 사람이므로 王九思는 王維一의 이전 사람이다.

② 『明史』 卷二八六에 王九思傳이 있다. 이 사람의 字는 敬夫이며 號는 羨陂이며 鄆顯人이다. 벼슬이 吏部主事 郎中에 이르렀고 詞曲을 잘 노래하고 읊었으며, 康海 何景明 등과 함께 十才子라고 칭하여졌다. 『溪陂集』, 『碧山樂

府』, 『春遊記』 등의 著書가 있다. 그는 이미 醫家도 아니며 『難經』을 校正한 적도 없다. 그러나 『難經』을 校正한 王九思는 琴台人이므로 분명히 同一人이 아니다.

③ 明初 呂復은 『九靈山房集·滄州翁傳』에서 이미 『難經集注』를 보고 일찍이 "宋王維一集五家之說"이라고 하였다. 그 때에 『明史』에 王九思는 오히려 아직 出生하지도 않았다.

④ 南宋 李嗣의 『難經句解·序』중에서 이미 '十先生'이라고 지적하였는데 그 중에 王九思가 있다.

이상의 사실에 근거하면 校注人 王九思는 절대로 明代의 사람이 아니며 또한 최후로 編集한 사람도 아니다. 丹波元胤은 "王九思 王鼎象 石友諒은 雖他書無所見이나 其與惟一로 同爲北宋人은 無疑矣라"라 지적하였으니 우선 이 說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²⁴⁾

(4) 『難經十家補注』의 編輯과 그 成書年代

日本 無名氏의 『難經俗解抄』의 卷首에 十家補注가 "建安李元立鋟木於家塾"을 거쳤다는 것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說은 믿을 만하다. 馬繼興의 考證에 의하면 李元立이 南宋人일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하면 南宋時代 建安에서 私家에서 책을 刊行하는 풍습이 盛行하여 더욱 많이 家塾本이 알려져 있다. 그 중에 '李氏建安書堂'이라고 이름한 것이 있는데 이는 즉 李元立의 家塾을 바꾸어 말한 이름과 같다. 또한 李嗣이 南宋 咸淳五年에 撰한 『難經句解』의 自序중에 이미 "十先生補注"라고 제시하였으므로 그 成書年代는 적어도 南宋 咸淳五年의 前임은 마

23) 凌耀星, 上揭書, pp. 162-163

24) 凌耀星, 上揭書, pp. 163-164

당히 의심할 바가 없다.

『難經集注』의 初期本은 이미 존재하지 않으며 成書年代도 자세하지 않고 『四庫書目』에도 또한 실려있지 않으니 그 책이 失傳된 지 이미 오래임을 알 수 있으며, 현재 전해지는 版本은 日本에 전해져서 보존된 것이다. 日本 最古의 刊行本은 日本 慶安五年(서기 1652년) 武村市 兵衛刊行本이다. 上海圖書館, 臺北古宮博物院 및 日本內閣文庫에 모두 보관되어 있다. 日本 文久三年(1863년) 日本人 林衡이 『佚存叢書』本을 重刊하였다. 이 책은 중국에 유통되는 다수의 影印本과 印刷本이 있다. 예를 들어 1924년 上海 涵芬樓影印本, 1956년 人民衛生出版社에서 句를 가한 影印本이 있으며, 王氏가 重刊한 『四部叢刊』의 影印本이 있고, 清代 咸豐二年(1955년) 金山錢熙祚가 校勘하고 注釋하여 『守山閣叢書』에 수록하였는데, 『四部備要』本 및 1955년 商務印書館 印刷本이 있다.²⁵⁾

2-2. 北宋時代 『難經』 注釋本

1) 難經補注 二卷 (宋) 丁德用注 佚

(1) 丁德用的 生涯

北宋時代의 濟陽(지금의 東濟南)사람으로 嘉祐間(1056-1063년)에 살았다. 丁氏는 唐代의 楊玄操가 注한 『難經』의 文字가 어렵고 深奧한 것에 대해 補注하고 圖를 그려서 發明하여 『難經補注』 一書を 撰하였으나 이미 佚失하였다.²⁶⁾

(2) 著書

『文獻通考』, 『世善堂藏書目錄』, 『國史

經籍志』, 『中國醫籍考』 등에 의하면 별도로 『傷寒慈濟集』 一書가 있으나 역시 佚失하였다.²⁷⁾

(3) 著書特徵

『通志·藝文略』에 宋에 丁德用이 『難經補注』를 撰하였다고 하였으며, 『郡齋讀書後志』와 『文獻通考』에 『丁德用注難經』 五卷이라고 하였으며, 『直齋書錄解題』에는 『難經』 二卷이라고 이름하였으며, 『難經本義』의 引用 諸家姓名에서 『難經補注』라고 하였으나 佚失하였다.²⁸⁾

丹波元簡의 『醫籍考』에 의하면 “趙希弁이 말하기를 ‘丁德用은 楊玄操가 演釋한 것이 매우 大義를 잃었다고 하여 따라서 改正하였으니 經文에서 隱微하고 深奧한 것을 그려서 圖를 만들었다.’고 하였고, 陳振孫이 말하기를 ‘……閱覽하는 者가 알기 어려우므로 보충하였고 그 사이에 圖를 만들고 八十一難을 나누어 十三篇을 만들었는데 首篇에 診候가 가장 자세하다. 모두 二十四難이니 대개 脈學이 扁鵲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다.’라 하였다.

2) 虞氏注難經 五卷 (宋) 虞庶注 佚

(1) 虞庶에 대하여

宋代의 仁壽(지금의 四川省 仁壽縣)사람이다. 漢嘉(지금의 東山縣)에도 잠시 살았다. 어려서 儒學을 익혔으나 후에 버리고 醫業을 하였다.²⁹⁾

25) 凌耀星, 上揭書, pp. 164-165

26) 李雲, 上揭書, p. 6

27) 李雲, 上揭書, p. 6

28) 凌耀星, 上揭書, p. 181-182

29) 李雲, 上揭書, p. 911

(2) 著書

『文獻通考』, 『西陽直隸州志』에 의하면 著書에는 『難經注』 五卷이 있는데 治平間(1064-1067년)에 黎泰辰이 序를 지었다.³⁰⁾

(3) 版本

『郡齋讀書後志』, 『文獻通考』에서 보이며 『難經本義』의 〈引用諸家姓名〉에서 『難經注』라고 되어 있다.³¹⁾

3) 注解難經 (宋) 楊康侯注 佚

(1) 生涯

字는 子建이며 號는 退修이다. 北宋시대의 靑神縣(지금의 四川省 靑神縣)사람이다. 독서를 즐겨했고 醫學을 좋아하여 群書를 博覽하고 정밀하게 연구하여 스승없이 스스로 통하여 醫理를 익숙히 알았다.³²⁾

(2) 著書

『國史經籍志』, 『四川通志』, 『中國醫籍考』 등에 의하면 그의 著書는 『十產論』 數卷, 『護命方』 五卷, 『通神論』 十四卷이 있으나 모두 佚失하였다.³³⁾

(3) 版本

『王翰林集注黃帝八十一難經』에서 보인다.³⁴⁾

4) 秦越人難經疏 十三卷 (宋) 侯自然疏 佚

30) 李雲, 上揭書, p. 911
31) 凌輝星, 上揭書, p. 182
32) 李雲, 上揭書, p. 336
33) 李雲, 上揭書, p. 336
34) 凌輝星, 上揭書, p. 182

(1) 生涯

宋代 사람으로 生涯와 고향은 자세하지 않다.³⁵⁾

(2) 著書

『崇文總目』, 『醫書類』, 『國史·經籍志』에 의하면 著書에 『難經疏』 十三卷이 있으나 이미 佚失하였다.³⁶⁾

(3) 版本

『宋史·藝文志』와 『崇文總目輯釋』에서 보이나³⁷⁾ 原本은 이미 佚失되었다.³⁸⁾

5) 難經解義 一卷 (宋) 龐安時解 佚

(1) 生涯

字는 安常이며 北宋蕪³⁹⁾州蕪水(지금의 湖北 蕪春縣)麻橋人이다. 幼時에 총명하여 눈에 보면 곧 암기하였다. 그 父親은 世醫였으며 그에게 脈訣을 가르쳐 주었는데 安時는 “是不足爲也”라고 하고는 이에 『內經』, 『難經』의 諸書를 읽고 오래지 않아 그 說을 터득하여 새로운 뜻을 밝혀내어 辨別과 詰難을 굽히지 않았다. 나이가 弱冠이 되기 전에 귀머거리라 얹아 마침내는 醫學에 전력하여, 醫書이외에 經傳百家중에 醫道와 관련된 것을 모두 관람하지 않은 것이 없다. 후에 세상에 醫術을 펼쳐서 열명을 치료함에 여덟 아홉명이나 治愈하게 되었다. 방문하여 진료를 구하는 사람을 위하여 큰 여관을 지어서 거처하게 하여 친히 진료하고 粥과 藥物을 주고서

35) 李雲, 上揭書, p. 656
36) 李雲, 上揭書, p. 656
37) 凌輝星, 上揭書, p. 182
38) 嚴世藝, 上揭書, 1991, p. 164
39) 蕪(기): 궁궁이삭, 풀 이름, 승검초, 재갈, 풍년들기를 기원하다

반드시 완전히 나은 뒤에 보였으며 불가능한 사람은 반드시 실제대로 알려주어 다시는 치료하지 않게 하였다. 평생동안 活人한 것이 매우 많아 名聲이 세상에 떨쳤다. 따라서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病家가 돈과 비단을 가지고 와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을 다 받지 않았다. 그러나 좋은 책과 古書를 매우 좋아하여 얻으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蘇軾과 安時는 交際가 매우 빈번하였는데, 元豐五年(1081년)에 蘇軾이 왼손이 부어서 安時가 치료하였는데 한번 침을 놓자마자 나아서 蘇軾이 그 醫術에 감탄하였다. 安時는 나이가 五十八歲에 病이 들어서 門人이 脈을 보기를 請하자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살피는 것이 자세하다. 또한 呼吸 역시 脈이다. 이제 胃氣가 이미 끊어졌으니 죽을 것이다"라고 하고서 마침내 藥餌를 모두 물리쳤다. 수일 후에 손님과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별세하였다.⁴⁰⁾

(2) 著書

그의 著書에는 『傷寒總病論』, 六卷이 세상에 刊行되어 지금도 전해오며 또한 『難經辨』, 『主對集』, 『本草補遺』, 『家藏秘傳寶方』 등의 책이 있으나 모두 전하지 않는다. 生前에 弟子가 數十人이었는데 張擴, 李百全, 胡道士 등이 가장 뛰어났다. (『宋史·龐安時傳』, 『宋史·藝文志』, 『東坡志林』, 『仇池筆記·單驥孫兆』, 『夷堅志』, 『譚山雜識』, 『李謙醫史·張擴傳』에 보인다)⁴¹⁾

(3) 版本

『宋史·藝文志』에 보인다. 『宋史·藝文

40) 李雲, 上揭書, pp. 592-593

41) 李雲, 上揭書, pp. 592-593

志』에 또한 龐氏의 『難經解』, 一卷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宋以前醫籍考』에는 「右兩書」同出於宋志하니 蓋同一書也乎인저"라고 하여 『難經解義』와 『難經解』가 모두 『宋史·藝文志』에 실려 있으므로 同一書籍인 듯하다고 추측하고 있으며 『難經本義·彙考』에는 『難經解』라고 인용하고 있다.⁴²⁾ 原本은 이미 佚失하였다.⁴³⁾

6) 黃帝八十一難經注釋 一卷 (宋) 宋庭臣 佚

(1) 生涯

宋代으로 생애와 고향은 자세하지 않다.⁴⁴⁾

(2) 著書

『宋史·藝文志』에 著書에는 『黃帝八十一難經注釋』, 一卷이 있으나 이미 佚失하였다.⁴⁵⁾

(3) 版本

『宋史·藝文志』에 書名이 보이니⁴⁶⁾ 그 原本은 이미 佚失하였다.⁴⁷⁾

7) 難經疏義 二卷 (宋) 王宗正疏義 佚

(1) 生涯

字는 誠叔이며 南宋 紹興(지금의 浙江省 紹興)사람이다. 生涯는 자세하지 않다.⁴⁸⁾

(2) 著書

『難經疏義』, 二卷이 있으나 이미 佚失하였

42) 凌耀星, 上揭書, p. 182

43) 嚴世藝, 上揭書, 1991, p. 164

44) 李雲, 上揭書, p. 400

45) 李雲, 上揭書, p. 400

46) 凌耀星, 上揭書, p. 182

47) 嚴世藝, 上揭書, p. 171

48) 李雲, 上揭書, p. 54

다.⁴⁹⁾

(3) 版本

『宋史·藝文志』에 보인다. 『難經本義』의 引用諸家姓名에 『難經注義』라고 되어 있으나 原本은 이미 佚失하였다.⁵⁰⁾

丹波元胤의 『醫籍考』에서 '王氏正宗의 『難經疏義』'를 『彙考』에서는 '王宗立'의 『難經注義』라고 하였다고 하였다.⁵¹⁾

滑壽에 의하면 王宗正은 字가 誠叔이고 宋나라 紹興의 사람으로 將仕郎試將作監을 지냈으며 『難經注義』를 지었다고 하였다.⁵²⁾

『中國醫籍考』에서는 丹波元胤의 『醫籍考』에서 '王正宗'이라 한 것은 그른 것이고, 『匯考』에서는 '王宗立'의 『難經注義』라고 한 것을 인용하였다.⁵³⁾

8) 難經疏 一卷 (宋) 無名氏疏 佚

(1) 版本

『寶素堂藏書目錄』에 無名氏가 『難經疏』一卷을 지었다고 하였으나 佚失하였다.⁵⁴⁾

9) 難經疏 (宋) 高承德疏 佚

(1) 生涯

宋代 사람으로 生涯와 고향은 자세하지 않다.⁵⁵⁾

(2) 著書

『中國醫籍考』에 의하면 著書에 『難經疏』一卷이 있으나 이미 佚失하였다.⁵⁶⁾

(3) 版本

書名만이 『中國醫籍考』 卷七에 보인다. 書云 "按右見於僧幻雲 史記扁鵲公傳附標"⁵⁷⁾

丹波元胤의 『醫籍考』에 僧幻雲의 『史記扁鵲公傳附標』에 보이며 『紀天錫集註』에 또한 그 뜻을 反駁하였으니 高承德은 宋나라 사람인 줄 알겠다.⁵⁸⁾

10) 劉氏難經解 (宋) 佚名 佚

(1) 生涯

王洙의 『談錄』에 의하면 옛날에 東郡에 한 醫師가 있었으니 姓이 劉氏이다. 그 醫術이 매우 奇異하였다. 『黃帝八十一難經』을 通達하였다. 難經의 注釋이 그 뜻을 잃은 것을 해석하여 가져서 이에 스스로 풀이하여 朝廷에 獻納하고 因하여 사람들에게 講義하여 스스로 『劉難經』이라고 불렀다. 그가 治病하고 察脈함에 은미한 것까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팔꿈치 뒤에 두개의 藥상자가 있었는데 다만 가루약 몇가지에 불과하였다. 매번 사람의 병을 봄에 돌아서서 그 분말을 취하여 和合하고 加減하였다. 어떤이가 일부러 劑料를 나누어서 그 날짜에 복용할 數를 채우지 않아 病이 낫지 않았다. 다른 날에 다시 劉氏가 다시 와서 말하기를 "이 藥을 服用하는 것을 그 수를 채우지 않았을 뿐이다. 그 남은 것이 당연히 몇개 있으리라"고 하여 사람들이 그를 능히 속이지 못하였다. 後에 늙어서

49) 李雲, 上揭書, p. 54

50) 凌耀星, 上揭書, p. 182

51) 丹波元胤, 上揭書, p. 69

52) 嚴世藝, 上揭書, p. 712

53) 嚴世藝, 上揭書, p. 712

54) 凌耀星, 上揭書, p. 182

55) 李雲, 上揭書, p. 757

56) 李雲, 上揭書, p. 757

57) 凌耀星, 上揭書, p. 182

58) 丹波元胤, 上揭書, p. 69

別世하였다.⁵⁹⁾

(2) 版本

『中國醫籍考』 卷七에 보이며 『談錄』에서 인용하였다.⁶⁰⁾

11) 扁鵲八十一難經辨正條例 (宋) 周輿權撰 一卷 佚

(1) 生涯

字가 仲立으로 宋代의 臨潼(지금의 陝西省 臨潼縣)사람으로 生涯는 자세하지 않다.⁶¹⁾

『經籍訪古志』에 의하면 扁鵲八十一難經辨正條例 一卷은 宋代 醫門後學인 臨川의 周輿權이 辨正하였다고 하였다.⁶²⁾

(2) 著書

『九靈山房集』, 『中國醫籍考』에 의하면 저서에 『難經辨正釋疑』가 있으나 이미 佚失하였다.⁶³⁾

(3) 版本

『古宮博物院書目』에 보인다. 『難經本義』의 〈引用諸家姓名〉에 『難經辨正釋疑』라고 되어 있다.⁶⁴⁾

『宋以前醫籍通考』에 의하면 “『櫟⁶⁵⁾窗⁶⁶⁾先生跋略』에 櫻寧生이 『難經本義』를 지을 때에 그 凡例 首條에 周氏(周輿權)가 마음대로 해

석한 것을 기롱하였으나 내가 일찍이 이르되 …… 舊文의 錯誤에 구애하고 牽強附會하여 설명한 것을 보아 알게 하였으니 闡發하지 않은 것이 없다. 대개 이것이 ‘辨正’과 ‘釋疑’의 條例인 것이다. ……”라고 하였다.⁶⁷⁾

12) 難經辨正釋疑 (宋) 周輿權撰 一卷 佚

(1) 版本

呂復에 의하면 『難經』을 周仲立(周輿權의 字)이 자못 校訂하고 바꾸었으나 考證이 자세하지 않다고 하였다.⁶⁸⁾

13) 難經注 (宋) 馮玠 佚

(1) 生涯

宋代人으로 生涯와 고향은 자세하지 않다.⁶⁹⁾

(2) 著書

『中國醫籍考』에 의하면 著書에는 『難經注』 一書가 있으나 이미 佚失하였다.⁷⁰⁾

(3) 著書特徵

자세히 알 수 없으나 滑壽에 의하면 “『難經』 諸家の 注釋中에 馮氏와 丁氏는 穿鑿한데에 잘못하였다”고 하였다.⁷¹⁾

(4) 版本

『難經本義·彙考』와 『中國醫籍考』 卷七에 보인다.⁷²⁾

59) 『中國醫籍考』 劉氏難經解 p. 203

60) 凌耀星, 上揭書, p. 183

61) 李雲, 上揭書, p. 573

62) 嚴世藝, 上揭書, p. 171

63) 李雲, 上揭書, p. 573

64) 凌耀星, 上揭書, p. 183

65) 櫟(欒): 상수리나무, 난간, 노략질하다

66) 窗(窓): 窓의 本字

67) 嚴世藝, 上揭書, p. 171

68) 丹波元胤, 上揭書, p. 69

69) 李雲, 上揭書, p. 136

70) 李雲, 上揭書, p. 136

71) 嚴世藝, 上揭書, pp. 172-173

72) 凌耀星, 上揭書, p. 183

鄭所南에 의하면 “兩腎 사이가 下丹田이 되는 것이 『神景』 『內經』에 나온다. 『馮玠註難經』의 八難의 아래의 註에 인용한 것이 매우 자세하다.”고 하였다.⁷³⁾

14) 難經注(宋) 謝復古 佚

(1) 生涯

『古今醫統·歷世聖賢名醫姓氏』에 의하면 宋代人으로 고향은 자세하지 않다. 일찍이 翰林學士를 지냈으며 醫藥에 精通하여 傷寒病證治研究에 대하여 仲景의 奧旨를 闡發하였다.⁷⁴⁾

(2) 版本

『宋以前醫籍考』 第三類에 보인다.⁷⁵⁾

15) 集注黃帝八十一難經 五卷(宋) 王維一 佚

(1) 王維一에 대하여

宋代 약 981-1067년간의 사람으로 또한 王維德이라고도 한다. 고향은 자세하지 않으나 유명한 鍼灸醫學家였다. 일찍이 太醫院翰林醫官 殿中省尙藥奉御에 임명되었다. 天聖(1023년-1031년)초에 黃帝의 命을 받아 鍼灸書를 編修하였다. 天聖四年(1062년)에 『銅人腧穴鍼灸圖經』 三卷을 지었는데 現存한다. 天聖七年(1029년)에 “鍼灸銅人” 두 개를 정교하게 구리로 만들는데, 그 내부에는 臟腑가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고 그 外部에는 모든 腧穴處에 구멍이 있으며 그 옆에 穴名을 象嵌으로 써넣고 곁에 蜜蠟을 발라서 그 가운데를 물로 채워서 醫師를 시험하였다.⁷⁶⁾

73) 丹波元胤, 上掲書, p.70

74) 李雲, 上掲書, p.900

75) 凌耀星, 上掲書, p.183

(2) 著書

王維一은 또한 『集注八十一難經』 『明堂經』 등의 책을 지었으나 모두 佚失하였다. (『宋史藝文志』 『世善堂藏書目錄』 『醫藏書目』 『崇文總目』 『醫籍』 『四庫全書總目提要』 『宋以前醫籍考』 『中醫大辭典』 등에서 보인다)⁷⁷⁾

(3) 著書特徵

呂復에 의하면 “『難經』 十三卷은 宋代 王維一이 五家의 說을 모았으나 순수한 것과 잡된 것이 서로 섞여 있었다. 오직 虞氏만이 대강 그 책을 보았다”고 하였다.⁷⁸⁾

(4) 版本

『集注黃帝八十一難經』은 一名 『集注八十一難經』이라고 하는데 『經籍訪古志』에 의하면 『集注黃帝八十一難經』 五卷을 宋에 王維一이 注하였으나 佚失하였고, 『難經古注集成本』에 書名이 실려 있는데 日本慶安五年(1652년) 武村市兵衛刊本の 影印本, 日本文化元年(1804년) 濯纓堂藏板刊本, 1956년 人民衛生出版社의 佚存總目書本影印에 근거하였다.

『中國醫籍通考』에서는 明代 王九思가 지은 것은 『難經集注』이라고 하였다.⁷⁹⁾

丹波元胤의 『醫籍考』에 의하면 “丹波元簡이 말하기를 『王翰林集注黃帝八十一難經』 五卷은 宋志와 晁陳二氏와 滑氏의 『難經彙考』의 類에 모두 기록되지 않고 오직 明葉盛菴竹堂書目에도 또한 『難經集註』 一卷이 있으나 王氏가

76) 李雲, 上掲書, p.68

77) 李雲, 上掲書, p.68

78) 丹波元胤, 上掲書, p.66

79) 嚴世藝, 上掲書, p.169

모아놓은 것인지는 알지 못하겠다. 金代에 紀天錫이 또한 『難經集註』 五卷을 撰하였으나 卷數가 일치하지 않으니 아닌 것 같다. 이제 이 책의 每卷의 머리에 '呂廣 丁德用 虞庶 楊康侯 註解. 王九思 王鼎象 石友諒 王惟一 校正. 附音釋'라 제목하였으니 이른바 王翰林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宋 仁宗 天聖四年에 王惟一이 翰林醫官 朝散大夫 殿中省 尙藥奉御騎都尉였으니 『銅人腧穴鍼灸圖經』을 왕명으로 編纂 修訂하였으니 王翰林은 곧 王惟一이다. 趙希弁의 기록을 살펴보면 丁德用의 註는 嘉祐末에 완성되었고 虞庶의 註는 黎泰辰이 治平間에 序文을 썼으니 또한 天聖의 뒤의 일이다. 이것으로 보면 王惟一은 仁宗 英宗의 兩朝間에 두루 벼슬을 하여 『銅人經』을 修訂한 後에 數十年이 지나서 이 『難經』을 校正한 것이다. 呂廣 楊玄操 丁德用 虞庶의 註는 簿錄에 그 제목이 실려 있고 諸家 또한 많이 인용되었으나 특히 楊康侯에 있어서는 고증할 바가 없다. 註中에 楊氏라고 稱하여 丁氏의 說을 반박한 곳 두 條만이 분명히 楊康侯의 說이나, 나머지는 모두 楊玄操의 說과 섞여 있어서 分別할 수가 없다. 王九思 王鼎象 石友諒은 비록 他書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들이 王惟一와 함께 北宋時代의 사람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舊刊慶安板은 비록 元祖의 版本을 볼 수 없으나 王翰林이라 제목하였으니 모두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吳나라 呂廣以下의 說이 이에 의하여 傳해 온다. 요컨대 醫經에 註가 있는 것 중에 이것이 最古에 해당한다."고 하였다.⁸⁰⁾

16)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 四卷 (宋) 李昉 存

(1) 生涯

字는 子野이며 自號는 晞范子이고 南宋時代

80) 丹波元胤, 上掲書, pp. 66-67

臨川(지금의 江西臨川縣)사람이다. 生涯는 자세하지 않다.⁸¹⁾

(2) 著書

『句解八十一難經』 八卷이 현존한다. 또한 『集解脈訣』 『脈髓』 등의 책이 있었으나 이미 佚失하였다. 『絳雲樓書目』 『國史經籍志』 『九靈山房集·滄州翁傳』 『中國醫籍考』 『補元史藝文志』 『靜嘉堂文庫書目』 등에 보인다.⁸²⁾

(3) 序文

李昉의 自序가 있으니 自序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可以生人하며 可以殺人은 莫若兵與刑라 然이나 兵與刑이 乃顯然之生殺은 人皆可得而見이어나와 醫| 乃隱然之生殺은 人不可得而見이라 年來妄一男子| 耳不聽難素之語하며 口不論難素二文이어늘 濫稱醫人하야 妄用藥餌하야 誤之於尺寸之脈하니 何啻乎尺寸之病이리오 差之於輕重之劑는 有甚於輕重之刑이라 予業儒未效하야 唯祖醫是習할새 不揆所學하야 嘗集解王叔和脈訣矣하며 嘗句解幼幼歌矣라 如八十一難은 乃越人受桑君祕術이니 尤非庸淺者의 所能測其秘이라 隨句箋解하야 義不容桀일새 敬以十先生補註로 爲宗祖하니 言言有訓하고 字字有釋이라 必欲君子口誦心惟하노니 以我之生으로 觀彼之生하면 自必能回生起死矣리니 何更⁸³⁾有實實虛虛 醫殺之譏이리오 吁라 醫有生人之功이 如此하니 其不賢於兵刑之生殺哉인저 時 大宋咸淳五年 歲次

81) 李雲, 上掲書, p. 392

82) 李雲, 上掲書, p. 392

83) 嚴世藝의 『中國醫籍通考』에는 '至'字로 되어 있다.

己巳 孟春에 臨川 布范子 李嗣 子野는 自序하노라⁸⁴⁾

(4) 著書特徵

그는 著書에서 自序 중에 “敬은 以十先生補注로 爲宗祖하니 言言有訓하고 字字有釋이라”이라고 하였는데 이른바 “十先生補注”란 것은 「難經十家補注」를 지칭하여 말한 것이다. 그 編次는 또한 「難經集注」와 같으므로 당연히 同一系統에 속한다. 책의 앞에는 그림이 三十餘幅이 붙어 있고 注釋文의 內容은 평이하야 明代 呂復은 「九靈山房集·滄州翁傳」에서 “無所啓發”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宋代 「難經」의 注釋本이 보존되었고 아울러 지금까지 전해진 것이 특히 적으므로 참고할 가치가 없지 않다.⁸⁵⁾

또한 註義圖序論에 의하면 “..... 이제 내가 古人의 말을 함부로 생각하고 또한 編末에 그 大法을 모아서 素問과 합하여 論하고 그림을 그려서 楊玄操의 註에서 義理에 맞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뽑아내어 상세히 변론한다. 그런 후에야 切脈의 綱要를 燦然히 볼 수 있으니 醫者가 살펴보면 可히 是非를 分辨하여 邪說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⁸⁶⁾라고 하였다.

(5) 版本

「國史經籍志」에 그 書名이 보인다.⁸⁷⁾ 「難經句解」라고 簡稱하며 또한 「難經圖解」라고도 한다. 咸淳五年(1269년)에 책이 완성되었다. 初刊本은 이미 현존하지 않고, 현존하는 최초의 것은 元代의 版本으로 書名이 「新刊晞范句解八

十一難」 八卷이다. 日本 靜嘉堂에서 所藏한 그 影印本은 이미 日本의 「難經古注集成」중 (1982년)에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 또한 七卷本이 있는데 「道藏」에 수록되어 있다. 上海涵芬樓에 「道藏」의 影印本이 있다.⁸⁸⁾ 「道藏」에는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 七卷으로 되어 있다. 「絳雲樓書目」에는 「圖注難經」이라고 되어 있다. 「元史·藝文志」에는 「李晞范注難經」이라고 되어 있다.⁸⁹⁾ 「中國醫籍考」에는 道藏本에 따라서 七卷, 「難經校注」에는 四卷, 「中醫人名辭典」에는 「元史·藝文志」을 따라서 八卷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판본으로는 아래와 같다.⁹⁰⁾

- ① 涵芬樓影印明「正統道藏本」
- ② 「道藏學要本」
- ③ 「道藏」另⁹¹⁾種本
- ④ 抄本

3. 金元時代

3-1. 金元時代 「難經」 注釋의 動向

元代에 「難經」의 注本에는 袁坤厚(字는 淳甫이며 古益人으로 成都醫學官을 지냈다.)이撰한 「難經本旨」가 있다. 謝縉孫(字는 堅白이며 廬陵人으로 元統間醫候郎 遼陽路官醫提舉)은 「難經說」을 撰하였다. 陳瑞孫(字는 廷芝 慶元

84) 丹波元胤, 上掲書, p. 69

85) 凌耀星, 上掲書, p. 165-166

86) 丹波元胤, 上掲書, p. 69-70

87) 凌耀星, 上掲書, p. 183

88) 凌耀星, 上掲書, p. 166

89) 凌耀星, 上掲書, p. 183

90) 嚴世藝, 上掲書, p. 175

91) 另(명): 별도, 따로, 헤어지다

人 溫州路醫學正)은 그 아들과 함께 難經辨疑를 지었다.(以上은 滑壽의 「難經本義」 〈引用諸家姓名〉에 보인다.) 그 책은 모두 佚失하였으나 그 부분적인 內容은 滑壽가 引用하였다. 元代 注本 중에서 刊行本이 가장 많아서 後世에 影響이 비교적 큰 것은 元代末期 至正 二十一年(1316년)에 滑壽의 「難經本義」 二卷(「國史經籍志」에 보인다.)이다.

3-2. 金元時代 「難經」 注釋本

1) 集注難經 五卷(「國史經籍志」作三卷)(金) 紀天錫 佚

(1) 生涯

字는 齊卿이며 金代 山東省 泰安縣의 사람이다. 어려서 儒學를 버리고 醫學을 해서 醫術에 정통하여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다.⁹²⁾

(2) 著書

「金史·方技·紀天錫傳」에 의하면 著書에는 「集注難經」 五卷이 있으며 大定十五年(1175년)에 그 책을 朝廷에 올려서 醫學博士에 올랐다.⁹³⁾

(3) 序文

序文은 고찰할 바가 없고, 다만 자신의 注釋本을 朝廷에 獻納할 때 올린 글이 있어서 이에 소개한다.

紀天錫「進難經表」에 曰臣天錫은 聞濟世之道 | 莫大於醫하고 識病之源이 在于經典하노이다 今有八十一難經이 爲醫之祖이니 是秦越人이 將黃帝素問疑難之義八十一篇을 重而明之라 故

로 曰八十一難經이니이다 然이나 其文義闊奧할새 後學難知하니이다 雖近代以來에 有呂廣楊玄操高承德丁德用王宗正之徒 | 或作註解라도 或爲疎義하야 奈何文理差迭하야 違經背義이니이다 濫觴其說하야 遺而不解者 | 實其多矣일새 臣天錫이 念此爲醫之患하야 遂乃精加講求하야 首尾十餘年間에야 方始識其理趣云하노이다⁹⁴⁾

(4) 著書特徵

紀天錫의 「難經集注」는 王圻의 「續經籍志」에 의하면 그 內容이 王翰林的 「難經集注」와 서로 같지 않다. 이외에 또한 「補三史藝文志」에는 「紀天錫注難經」이 있다고 하였고 「萬卷堂書目」에는 「難經注解」라고 이름한 것이 있으니 실은 同一本의 書籍이다. 그는 呂廣 楊玄操 高承德 丁德用 王宗正 등의 五家의 注를 모으고 또한 그 뜻을 反駁하였다.⁹⁵⁾

呂復에 의하면 「紀齊卿의 「註難經」은 약간 精密하니 이에 楊玄操 呂廣 王宗正 세사람의 그 른 점을 分別하였다.”고 하였고, 丹波元胤에 의하면 “이 글은 오래전에 佚失하였는데 僧幻雲의 「史記附標」에 〈進難經表〉와 註의 解說 數十則이 있으니 辨論이 자못 精密하고 確實하다”고 하였다.⁹⁶⁾

(5) 版本

原書는 이미 佚失하였고 현재 臺北古宮博物院善本書庫 중에 「日本考古齊抄本」 一冊이 있는데 卷을 나누지 않았다.⁹⁷⁾ 「二十五史補編」 補元史藝文志 卷三에 보이며 「難經本義」 引用

92) 李雲, 上揭書, p. 262-263

93) 李雲, 上揭書, p. 262-263

94) 丹波元胤, 上揭書, pp. 70-71

95) 凌耀星, 上揭書, p. 165

96) 丹波元胤, 上揭書, pp. 70-71

97) 凌耀星, 上揭書, p. 165

諸家姓名에는 「難經注」라고 되어 있다. 王圻의 「續經籍考」에는 「難經集注」라고 되어 있다.⁹⁸⁾

2) 藥注難經(金) 張元素 佚

(1) 生涯

字는 潔古이며 세상에서 張易水라고 칭하였다. 金代 易州(지금의 河北易縣)사람이다. 어려서부터 儒學을 익혀서 八歲에는 神童이라고 불렸다. 二十七歲에 經義를 시험하여 벼슬에 오르려 했으나 皇帝의 諱를 犯함으로써 落第하여 이윽고 醫學을 익혔다. 깊이 연구하고 여러해를 걸쳐서 醫理에 洞徹하였다. 때마침 名醫 河間 劉完素가 傷寒을 앓은지 이미 八日에 頭痛 脈緊 嘔逆 不食하였는데, 元素가 와서 진찰하러 왔으나 劉氏가 面壁하여 돌아보지 않았는데 元素가 “왜 이와같이 나를 천대하는가?”라고 말하고는, 診脈이 끝나고 元素가 “病이 某와 같은가?”하고 묻자 河間이 “그렇다” 말하고, 元素가 “某藥을 服用하였는가?”하고 물는데 河間이 “그렇다” 말하자, 원소는 “그렇지 않다. 某藥의 性味는 寒하고 下降하여 太陽으로 走하는데 이제 脈이 이와 같으니 某藥이 아니면 效果가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자 劉氏가 그 말에 感服하여 藥을 服用하고 나았다. 따라서 元素의 이름이 떨쳐져서 사람들이 醫和 扁鵲을 만난 것 처럼 重視하였다. 그는 醫理에 대해서는 內經 등의 諸書를 追從하고 重視하였으나 臨證時에는 옛것을 많이 따르지 않으면서, 일찍이 “運氣가 서로 같지 않고 古今이 軌道가 서로 다르니, 古方에 新病은 서로 맞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스스로 家法을 이루어 “易水學派”의 始初가 되었다. 일찍이 經을 밝

힘으로써 涿州學正을 지냈다.⁹⁹⁾

(2) 著書

著書에는 「醫學啓源」 三卷, 「潔古本草」 一卷, 「潔古家珍」 一卷, 「潔古注叔和脈訣」 十卷, 「臟腑標本寒熱虛實用藥式」 一卷, 「素問病機宜保命集」 三卷이 있는데 모두 세상에 刊行되었다. 子張璧 李杲 王好古가 모두 그 傳함을 얻었다. 「金史·張元素傳」, 「醫學啓源·序」, 「古今醫統」, 「歷世聖賢名醫姓氏」, 「四庫全書總目提要」, 「直隸易州志」, 「補遼金元藝文志」 등에 보인다.¹⁰⁰⁾

(3) 著書特徵

滑壽에 의하면 “潔古氏의 「難經譯註」은 의심하던대 그 草稿로서 우선 章을 세우고 義例를 지적하여 미처 책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종종 그 言論이 經에 서로 부합하지 않고 또한 文理가 없으니 潔古老人이 平日的 著述에 지극히 순수하고 바르거늘 이는 절대로 서로 비슷하지도 않다. 어떤 것이 별도로 간행되어서 도리어 선생에게 누가 되는지 알지 못하겠다. 어찌 일삼기를 좋아하는 자가 만들어 놓고 선생의 이름을 의탁한 것이 아니겠는가! 요컨대 後에 李東垣 王海藏 羅謙甫 등이 모두 미처 보지 못하였으니 만약 보았다면 마땅히 그 說을 더불어 이루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또한 숨겨서 함부로 流傳되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¹⁰¹⁾

(4) 版本

「難經本義」의 〈引用諸家姓名〉에 書名만이

99) 李雲, 上揭書, p. 439

100) 李雲, 上揭書, p. 439

101) 嚴世藝, 上揭書, p. 174

98) 凌耀星, 上揭書, p. 184

보인다. 『絳雲樓書目』에는 「張潔古注難經」이라고 되어 있다.¹⁰²⁾

3) 難經重玄(元) 王少卿 佚

(1) 生涯

元代 사람으로 생애와 고향은 자세하지 않다. 醫道에 통하였다.¹⁰³⁾

(2) 著書

著書에는 「難經重玄」 一書가 있으나 이미 佚失하였다.¹⁰⁴⁾

(3) 著書特徵

呂復에 의하면 張潔의 「古難經集註」 後附 藥은 절대로 經의 뜻이 아니다. 王少卿이 그 說을 演繹하여 重玄이라 題目을 하였으니 또한 足히 奧妙한 것을 발휘하였다 할 수 없다.

(4) 版本

『中國醫籍考』 卷七에서 「九靈山房集·滄洲翁傳」을 인용한 곳에서 보인다.¹⁰⁵⁾

4) 難經本旨(元) 袁坤厚 佚

(1) 生涯

字는 淳古(一本에는 淳甫라고 되어 있다)이며 元代 古益(지금의 四川省 成都)사람이다. 醫理에 精通하여 일찍이 成都醫學正을 지냈다.¹⁰⁶⁾

(2) 著書

『難經本義·難經滙考』, 『補元史藝文志』

에 의하면 著書에는 「難經注」(一本에는 「難經本旨」라고 되어 있다) 一書가 있다. 名醫 滑壽가 그 책을 평가하여 "좋은 곳이 매우 많으나 因襲한 곳은 前人의 그릇된 것을 따르는데 벗어 나지 못하였고 庸劣하여 잘못하였다"고 말하였다. 이 책은 이미 佚失하였다.¹⁰⁷⁾

(3) 著書特徵

滑壽에 의하면 "袁坤厚는 …… 「難經本旨」를 지었는데 좋은 곳이 매우 많다. 그러나 그 因襲한 곳은 前人의 그릇된 것에 맹목함에免하지 못하였고 또한 庸劣함에 잘못하였다."고 하였다.¹⁰⁸⁾

(4) 版本

書名이 「難經本義」(引用諸家姓名)에 보인다.¹⁰⁹⁾

5) 難經說(元) 謝縉孫 佚

(1) 生涯

字는 堅白이며 元代 江西 廬陵縣 사람이다. 元統間(1333-1334년)에 遼陽路官醫提舉를 지냈다.¹¹⁰⁾

(2) 著書

『補元史藝文志』에 의하면 著書에 「難經說」 一書가 있으나 이미 佚失하였다.¹¹¹⁾

(3) 著書特徵

滑壽에 의하면 "謝縉孫은 …… 그 說이 매우 의리가 치밀하고 근원까지 캐내었다."고 하였다.

102) 凌耀星, 上揭書, p. 184

103) 李雲, 上揭書, p. 34

104) 李雲, 上揭書, p. 34

105) 凌耀星, 上揭書, p. 184

106) 李雲, 上揭書, p. 694

107) 李雲, 上揭書, p. 694

108) 丹波元胤, 上揭書, p. 72

109) 凌耀星, 上揭書, p. 184

110) 李雲, 上揭書, p. 901

111) 李雲, 上揭書, p. 901

(4) 版本

書名이 「難經本義」 〈引用諸家姓名〉에 보인다.¹¹²⁾

6) 難經辨疑 (元) 陳瑞孫 佚

(1) 生涯

字는 廷芝(一本에 庭芝라고 되어 있다)이며 元代 浙江省 鄞縣 사람이다. 일찍이 王應麟에게 師事하여 文章과 典故의 傳함을 얻어 醫理에 精通하여 일찍이 溫州路醫學正을 지냈다.¹¹³⁾

(2) 著書

「鄞縣志」 「中醫大辭典」 「補元史藝文志」 등에 의하면 著書에 「難經辨疑」 一書(一說에는 그 아들과 함께 지었다고 한다)가 있는데 引證한 것이 매우 넓어서 識者들이 칭찬하였으나 현재는 佚失하였다. 아들은 陳居仁이며 손자는 陳公亨이며 모두 醫術은 專攻하였다.¹¹⁴⁾

(3) 版本

書名이 「難經本義」 〈引用諸家姓名〉에 보인다.¹¹⁵⁾

7) 難經本義 二卷 (元) 滑壽注 佚

(1) 生涯

字는 伯仁이며 晚號는 櫻寧生이다. 元末 襄城(지금의 河南省 襄城縣)사람이다. 그의 祖父와 아버지는 모두 江南에서 벼슬하였으므로 江蘇 儀徵縣으로 옮겨 살았다. 滑壽는 어려서 빼어나고 민첩하였는데 처음에 韓說에게서 儒書를 배워서

하루에 千餘言을 능히 暗記하였고 더욱 樂府에 능하였다. 京口의 名醫 王居中이 儀徵에 손님으로 와서 머무를 때, 滑壽가 師事하여 그를 따라서 「素問」 「難經」을 배웠다. 學問이 이루어짐에 미처서 두 책을 編次하여 後學에게 이롭게 하였는데 王居中이 기뻐하면서 許諾하였다. 그 후에 다시 張機 劉完素 李杲 등의 諸家의 書籍을 연구하여 醫道가 더욱 발전하였다. 오래지 않아 또한 東平의 名醫 高洞陽에게 針法을 배워 「開闡流注 方圓補瀉」의 道를 얻어 능히 「靈樞」의 經脈의 要領을 깨달았다. 이런 境地에 이르러 治病함에 神效하지 않은 것이 없어, 드디어 吳나라와 楚나라의 사이에서 醫術을 지녀 餘姚에 居處를 정하였다. 도착하는 곳마다 病者가 다투어 診察을 請하여 「櫻寧生」의 診察을 받아, 한번에 生死를 決定하고 遺憾이 없었다. 醫德이 높아서 먼 곳에서 診察을 청하더라도 貧富를 莫論하고 모두 쫓아가서 風雨寒暑도 그를 막지 못하고 보수도 계산하지 않아서, 世人들이 그 德을 칭찬하였다. 나이가 七十에도 얼굴이 어린아이 같고 걸음이 가볍고 빨랐다.¹¹⁶⁾

(2) 著書

著書에 「十四經發揮」 三卷, 「讀素問鈔」 三卷, 「難經本義」 一卷, 「脈結」(또한 「脈理存眞」이라고도 한다) 一卷, 「診家樞要」 一卷이 있으며 모두 현존한다. 또한 「傷寒論鈔」, 「醫家引彀」 「五臟補瀉心要」, 「醫韻」, 「痔漏篇」 등의 書籍이 있으나 전해 내려오지 않는다. 紹興府志에 실려있는 것에 근거하면 滑壽의 本姓은 劉氏이며 劉基(字는 伯溫)의 아들이나 姓名을 바꾸어서 醫師가 되었다. 후에 劉

112) 凌輝星, 上揭書, p. 184
113) 李雲, 上揭書, p. 532
114) 李雲, 上揭書, p. 532
115) 凌輝星, 上揭書, p. 184

116) 李雲, 上揭書, p. 894

基가 高官에 올라서 滑壽를 불러 벼슬에 오르게 했으나 應하지 않고 한달여를 머물다가 떠났다. 이 일을 아직도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 우선 기록하여 참고하게 한다. (『明史方技·滑壽傳』, 『李濂醫史·撰寧生傳』, 『補元史藝文志』, 『醫藏書目』, 『中醫閣書聯合目錄』에서 보인다)¹¹⁷⁾

(3) 序文

滑壽의 自序, 劉仁本の 序, 揭法の 序, 張翥의 序 등이 있다.

(4) 著書特徵

滑氏는 前人의 注를 널리 모으고 두루 인용하여 그 本義를 疏하여 자못 闡發하고 또한 校勘하였고, 闕疑總類 一篇이 있는데 校記 十九條와 함께 대부분 '理校'에 속하니, 疑問과 意見만을 提示하고는 더 고치지 않았다. 당시 『難經集注』가 中國내에서 또한 이미 失傳하였는데 『難經本義』에서 인용한 書目과 古醫家의 姓名으로써 살펴보면 그 淵源이 또한 『難經十家補注』로부터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또 다른 系統을 세운 것임을 알 수 있다.¹¹⁸⁾

滑壽의 自序에 의하면 "歷代以來로 注家들이 서로 끊임없이 계속 나와 무려 수십명에 이른다. 그러나 어떤이는 번잡한데 잘못되고 어떤이는 간략한데 잘못하며 순수한 것과 결점이 섞이어 어지럽고 시비를 서로 공격하며 또한 그 책이 華佗가 불태움을 겪은 나머지, 문장이 빠지고 대쪽이 뒤섞였기 때문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 따라서 『靈樞』와 『素問』을 고찰

하여 그 근원을 찾고 仲景의 『傷寒論』과 王叔和의 『脈經』을 통달하여 그 실마리를 풀어내고 모든 諸家의 學說중에 좋은 것을 또한 여기 저기 모아서 두루 다하고, 빠진 문장과 끊어진 대쪽은 자세히 求하여 여전히 先儒들의 經文을 註釋하는 變例를 따라서 의심나는 것은 우선 의심나는 대로 그냥 傳한다."라고 하였다.

(5) 版本

『難經本義』의 初刊本은 이미 존재하지 않고 明初以後에 歷代에 반복하여 刊行함으로써 매우 널리 전해지게 되었다. 현존하는 最古의 版本은 上海圖書館에서 所藏하는 明萬曆十八年(1590년) 藍印本이며, 그 다음은 明萬曆二十九年(1601년)의 『古今醫統正脈全書』本이며, 기타 版本은 日本의 版本을 포함해서 十餘種以上이다. 그중에는 校勘한 것, 註釋한 것, 혹은 評述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 周學海의 『增輯難經本義』는 『難經本義』를 校勘한 것이며 張壽頤의 『難經彙注箋正』은 『難經本義』의 闕疑總類 一篇에 대해 各條마다 評述하였다. 1963년 人民衛生出版社의 印刷本은 일찍이 『難經本義』의 『醫統』本을 근거로 하고 또한 『四庫全書』抄本과 『周氏醫學叢書本』 등의 原文을 근거로 校勘하여고 아울러 校後記를 붙였다. 校正중에서 諸本에 增減한 것이 모두 二百三十餘條이며 그 중에 『難經』의 原文이 五十一條이다. 최근에 南京中醫學院에서 編纂한 『難經校釋』과 天津中醫學院에서 郭靄春 主編의 『難經集解』는 모두 『難經本義』에 근거하여 校勘하였다. 이외에 日本에서 『難經本義』를 연구한 학자도 또한 적지 않다. 刊行本을 제외하고도 再注本에 『難經本義抄』가 있는데 1361년에

117) 李雲, 上揭書, p. 894

118) 凌耀星, 上揭書, p. 166

玄由가 再注한 것이다. 寬永二十一年(1644년)에 里津玄長刻本이 있다. 『難經本義摭遺』는 1649년에 貞竹玄節이 지었고 萬治三年(1659년)에 谷岡七左衛門刻本이 있다. 『難經本義疏』는 明治五年(1872년)에 山田業廣이 撰하였는데 手稿本에 속하며, 『難經本義大抄』 二十七卷은 1678년 森本이다. 昌敬齋玄閑이 輯한 것은 日本 東洋醫學研究會의 『難經古注集成』의 影印本이다. 이외에 또한 『難經本義大抄』에서 인용한 諸書에 玄由가 撰한 『難經本義捷徑』 『難經本義古抄』 등이 있다.¹¹⁹⁾

현재 보유하고 있는 版本은 다음과 같다.¹²⁰⁾

- ① 明萬曆十八年庚寅(1590)刻藍印本
- ② 『古今醫統正脈全書』에 보인다.
- ③ 明萬曆二十九年辛丑(1601)步月樓梓行本
- ④ 『薛氏醫案二十四種』에 보인다.
- ⑤ 日本寬永十年(1633)吉田原仁左衛門刻本
- ⑥ 日本正保五年(1648)敦賀屋久兵衛刻本
- ⑦ 日本萬治三年(1660)刻本
- ⑧ 明刊本
- ⑨ 日本天和四年(1684)芳野屋作十郎刊本
- ⑩ 四庫全書本(文津閣本 文溯閣本)
- ⑪ 見『周氏醫學叢書』
- ⑫ 清刻本
- ⑬ 舊抄本
- ⑭ 1921年 大成書局石印本
- ⑮ 1918年 成都昌福公司鉛印本
- ⑯ 1956年 尙武印書館據『古今醫統正脈全書』本鉛印
- ⑰ 1963年 人民衛生出版社校刊本
- ⑱ 待鑒定本

119) 凌耀星, 上揭書, p. 166-167

120) 嚴世蓼, 上揭書, pp. 179-180

III. 結論

이상과 같이 『黃帝八十一難經』의 時代別 注釋家 및 그 注釋書에 대한 研究의 첫번째로서 北宋以前 및 宋金元時代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北宋 以前の 『黃帝八十一難經』의 注釋本은 呂廣과 楊玄操에 불과한데, 『黃帝八十一難經』의 최초의 注釋家로 알려진 呂廣은 呂博 또는 呂博望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本名이 呂廣이고 呂博이란 이름은 隋煬帝의 諱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2. 지금까지 알려진 北宋시대의 注釋本은 모두 16종이지만 그 대부분은 亡失되었고 오직 李嗣의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만이 존재한다.

3. 『集注難經』의 著者는 王翰林 또는 王維一 또는 王九思라고 알려져 있는데, 『九靈山房集』에 의하면 北宋의 王翰林 즉 王維一이라고 考證하였으며, 王九思는 明代의 사람이 아니라 北宋人 王維一 以前の 사람임을 확인하였다.

4. 丁德用의 『難經補注』는 『難經』의 難解한 부분을 최초로 그림을 그려서 發明하여 後世에 『難經』을 圖注하는 先河가 되었고, 당시에 李嗣의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에 영향을 미쳤다.

5. 金元時代의 注釋本은 그 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量的으로나 質的으로 많아져서

『難經』의 研究가 매우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6. 張元素의 『藥注難經』은 그 내용이 매우 矛盾되고 淺近하여 張元素 本人의 著述이 아니거나 혹은 그가 著述하였더라도 草稿本일 것이라고 믿어지고 있다.

7. 滑壽의 『難經本義』는 以前의 注釋本이 經文을 따라서 단지 解釋하는 傾向과는 달리, 그 奧義를 發揮하여 元代以後 현재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日本의 여러 注釋書의 표준이 되었다.

參考文獻

1. 凌耀星, 難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2. 李雲, 中醫人名辭典, 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1988.
3. 嚴世藝, 中國醫籍通考,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1.
4.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5. 唐湘清, 難經今釋, 臺北, 國立編譯館, 1985.
6. 丹波元胤, 難經疏證, 서울, 一中社, 1991.
7. 滑壽, 難經本義, 臺北, 臺灣中華書局, 1985.
8.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成文化社, 1989.
9.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서울, 民衆書林, 1966.
10. 商務印書館編輯部, 辭源, 홍콩, 商務印書館, 1987.
11. 高大民族文化研究所中國語大辭典編輯室, 中韓辭典, 서울, 1990.